

민중의 아픔 대변한 '저항의 삶'



'행동하는 양심'
안명진 지음
아름다운 사람들 / 1만3천원

"비가오나 눈이오나 삼복 땀벌 아래서나 혹한 겨울 바람 앞에서나 늘 검은 장삼 휘날리며 시위현장을 활보하는 춤추는 목탁꾼." 불교 사회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진관 스님을 두고 경찰과 시위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스님을 표현한 말이다.

"현장에 남는 사람이란 곧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다.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민중을 지키는 사람, 역사를 지키는 사람인 것이다." 재야운동의 현장이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문정현 신부를 두고 한 말이다.

<민중 21> 기자로 활동중인 저자 안명진씨가 그동안 인터뷰한 것을 짧은 평전 형식으로 정리한 이 책에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 통일목사 홍근수, 여성신학자 박순경, 해외포도 운동가 광동의, 비전향 장기수 박종민, 임기란 민가협 前 상임의장 등 10명이 등장한다.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핵심어는 다름 아닌 '자기희생'과 '실천'. 즉 어려운 시대 상황속에서 자기희생을 통해 난관을 딛고 역사와 민족,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세우는 경지에 올라섰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들의 역사적이고도 때로는 도전적인 행동이 결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당위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와 역사가 맞물린 필연적 귀결에서 비롯됐음을 밝혀내고 있다. 즉 비극의 작은 개인사가 모여 거대한 역사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들들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등 10명의 활동 평전형식 정리

리지 않은 '작은 양심'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힘겹게 걸어지고 걸어온 민족과 민중의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추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재진행형들이다.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만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다. 북한에서 출세길이 보장되는 민경대학명예학원을 뒤로 하고 남파되었다가 비전향장기수로 34년동안 옥고를 치른 박종민씨는 그러한 딸이 기다리고 있는 북녘으로 송환되지 못한 채 외로운 만년을 보내고 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

임의장 역시 해방직후 건국위원회 간부였던 부친에 이어 그의 아들이자 3대가 수감생활을 해왔던 이준을 기어올라 갔고 있다. 이런 아픔을 뒤로 한 채 이들이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한 여겼던 민족에 대한 희망도 언급되고 있다. '조국과 민족, 동포는 하나다' (광동의), '민중은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 (송두율), '불교는 민족정신의 발원지나 다름없다. 민족속에 뿌리내려 온 불교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진관 스님) 등.

안명진씨는 "이 책속의 주인공들이 겪어왔던 수난은 바로 민족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것을 풀이갈 대안도 민족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한 현상성을 띠고 있다. 이들의 삶에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이때문이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민화협 정책위원회 엮음
오름 / 1만5천원



남한식 思考론 북한 이해 어렵다

시내 큰 서점을 들러서는 여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느낌표"를 살 거라고 했다. 순간,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는 텔레비전 프로의 힘이 '힘이 쪽 빠지게' 느껴졌다. 다른 책도 좀 사 보겠... 백 가지 책을 읽는 사회와 한 가지 독서 열풍에 휩싸인 사회를 비교해 상상해 보라.

일류지방, 서울집중, 온갖 유행병, 이런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는 책읽기 편에서 한숨들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민화협 정책위원회 편)를 펼쳐본다. 이 책을 읽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한다. 남한식에 젖은 사고로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 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접해 보는 정보수용의 의미가 첫째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사고할 수 있는 힘, 열린 마음과 통일지향적 심성을 기르는 것이 덩어로 얻는 두 번째 이유이다.

내가 처음 북한문학사를 읽었을 때 충격이 생각난다. 최소한 해방까지는 동일한 문학 역사를 가졌는데도 정반대 가치로 쓴 것을 놓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느 것이 옳은지를 질문했다. 둘 다 맞는지 알고는 답할 수 없었다. 지금은 양

동에 대한 결론에서, 북한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개방을 기본 노선으로 하고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일치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사상문화적 침투를 경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소위 '모기장론'을 통해 개방바람은 실리적으로 취하고, 독이 되는 자본주의 사상 모기는 차단하여 주체사상과 체제를 고수하는 정책을 편다는 말이다.

이렇게 체제 수호와 변화를 함께 끌고 가야 하는 모순적 현실의 속사정은 극심한 경제난이다.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굶주림, 생산공장을 돌릴 수 없는 에너지난, 외환부족과 국가재정의 고갈은 총체적 경제파탄 상황이다. '고난의 행군' 속에서 주민들의 지구력과 배급체계의 붕괴를 비롯한 북한 사회제도의 변화들을 읽으면, 한반도 전체 역사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전환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것이다. 즉,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생활에서 공식 규범이 약화하고 현실대응의식이 달라지고 서서히 시장경제적 문이 열리

사회개방 '모기장론' 적용 이중적 자세

할 수 있는 가치, 또는 들을 아를러 볼 수 있는 우리 민족문화의 사고방식과 철학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데올로기, 북한 춘향전, 남한 춘향전, 이 둘은 다르면서 같은 춘향이 이야기이다. 경관본, 안성체본, 완판본 등 과거 춘향전에도 원본 개념이 없어, 무수히 판이 벌어지면서 이본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 시쳇말로 버전이 다를 뿐이다. 북한 체제를 반영한 북한식 춘향전은 '다른 체험'의 산물이면서 '이본 정신'으로 보면 또 하나의 자선이 된다. 물론 상호 비판을 통해 '통일 춘향전'을 써야 할 책무도 있다. 이처럼 다양성의 수용은 끝없는 창조로 이어지는 근본정신이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거거서 만들어진 대중문화 책을 통해 체험하는 일은 민족 역사의 이분을 이해하고, 앞으로 함께 할 역사를 쓰는 공리를 하게 한다. 이 책은 김일성 사후 극심한 경제난 속에 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 여가생활과 체육활동, 문화예술활동, 종교생활, 병역생활, 가족생활, 대학생활과 세세대 가치관 등 일곱 가지 주제를 박경중, 오양열 등 12명의 필자가 썼다. 그 가운데 문화예술화

고 있다. 가치관이 바뀌고, 장마당과 같은 '이차경제 영역'에서 살길을 뚫어낸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계층분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변화는 외부의 근본적인 지원없이 이뤄지고 있는 '자력갱생'의 현상이다. 문제 해결은 남북관계, 국제정치 세력의 선택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때, 논자의 평가대로, 북한 경제난 극복에 협력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시점의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은 '미래의 인간안보'에 대한 투자라는 주장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남북한 모두 인적 자원만이 자산인 조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북한 어린이의 영양실조와 교육 방지, 가임 여성의 열악한 건강 상태는 심각한 위기를 예측하게 한다.

편히 알고도 우리는 현실에서 충들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이 '대구 11대회 참가'를 반복하여 한동안 혼선을 빚었던 사건은 그냥 뉴스만 따라가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알고 보니, 취소했던 이유 그대로 '인공기 소각'에 대한 혐의였다.

■노규남 /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는 북한 사람들의 여가생활, 체육활동, 가족생활, 종교활동 등 일상문화에 대해 일체적으로 접근했다. 이 주제는 북한의 권력구조나 정치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진 상태였다.

그것이 진실인가요?

생각을 바꿔보시죠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일까? 우리의 삶을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많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미래가 불안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건강이 안 좋아서, 직장 상사가 싫어서,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자녀가 속을 썩여서, 취직을 못해서... 등. 우리는 이런 이유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지은 이인 바이런 케이티 역시 참된 현실로 깨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믿었다고 고백한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던 케이티는 이혼을 계기로 우울증이 심해졌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심지어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더 이상 살지 않겠다. 하지만 1986년 어느날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참 행복을 갖게 한 네가지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책은 바로 이 네가지 질문을 이용해 자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 17편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케이티가 이야기 하는 네가지 질문이란 '그게 진실인가요?', '그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생각을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 일까요?' 그리고 '뒤바꿔 보세요' 등이다. 앞의 두 질문은 자신의 생각을 의심함으로써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뒤의 두 질문은 생각이 고통을 일으키며, 그 생각이 없

행복을 찾아주는 17가지 사례 소개

으면 평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뒤바꿔보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결국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나는 슬프다. 왜냐하면 남편은 내게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진술을 종이에 썼다고 가정하자. 과연 그 생각이 진실인가?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네가지 질문'

바이런 케이티 · 스티븐 미첼 지음/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 1만원

가? 라는 생각을 저자의 안내에 따라 꼼꼼히 따져 보면 그동안 근거없는 생각을 믿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내 고통의 원인은 바로 내 생각의 끝자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억지로 누르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냥 이해하고 지켜보라는 것이다.

이렇듯이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가지 질문은 무엇인가를 급격히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려는 것이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삶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지된 생각을 진실로 믿고 있어 삶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자신에게 이 네가지 질문을 하면 우리가 조급전까지도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고정관념에서 해방돼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지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다. 그저 막연한 믿음으로만 보이는 이 질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주일 기자

해강스님의 지장기도 영험록

우리 곁에 지장보살 오셨네



해강 박영욱 지음/값 9,000원/광연문화

지장기도 영험록

영가친도는 왜 해주어야 하는가?
영가의 장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장기도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지장기도의 위력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능력을 되새겨 본다

부처님의 진리와 사상은 무한한 광명과 영원불멸의 실상이며 대자비 일 것입니다. 불교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높은 뜻을 지니고 어진 중생들을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지혜성심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자비의 등불을 밝혀 해탈의 길에 이르게 하는 종교입니다.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만연과 인간 본연의 심신과 윤리도덕관이 상실되고 기본적인 정신사상이 해이해져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바라는 바는 정신개발입니다. 이는 불교의 진리 탐구와 수행정진과 기도뿐일 것입니다. 여기에 소식이 이 사바세계의 악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많은 중생들과 구천에서 헤메이는 조상영가들을 지장천도재로 하여금 지장보살님의 대비원력과 위신력으로 체험한 '지금도 지장보살시대'란 영험록을 지난 2000년 1차 발행하고 다시 2002년 '오 지장보살님 나는 언제 지옥문을 두드리나이까' 제2집 영험록을 발행하여 이 세상에 발표된 바 있어 전국에 수많은 불자들과 타종교 신자들까지 많은 찬사와 감사의 서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수행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목탁과 같이 수행하면서 지장천도식을 마치면서 신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고 지장기도를 한 후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병들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영가친도를 통하여 구제받고 깨달음을 얻은 많은 영험들을 교훈으로 삼고 다시 이 글로 옮겨 놓았다.

대한불교 관음사 관음불교 교양대학 주지 학장 해강 박 영욱 함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6의 1호 TEL 02)917-3854, 917-0408 / FAX 02)3675-3854

총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51 타운힐빌딩 3층
TEL 02)3672-7181-5 / FAX 02)3672-7186